青 "협의 용의" 거국내각 구성될까

정치권 논란만 가열 실현 불투명

청와대 까다로운 조건 내걸어…해프닝 가능성
한나라당 "책임회피용 내각…참여의사 없다"

청와대가 여야의 거국내각 구성 요구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거국내각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거국내각 구성 요건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내각 구성에 관한 여야 합의 등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내걸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한나라당이 거국내각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상 초유의 거국내각 구성은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고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9일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가 정쟁이나 대통령 흔들기만 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의 처리를 방기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해준다면, 거국내각 및 관리내각 구성에 대해 여·야대표들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다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합의가 여야간에 있어야 하고, 내각구성에 대해서도 여야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두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10월말 노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가 거국내각 구성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윤 대변인은 "각종 개혁 법안 등을 국회가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담보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 온다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이번 거국내각 구성 협의는 지난 연말 대연정 구상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명숙 총리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여야가 내각의 구성이나 절차, 실효성에 대해 합의하고, 책임있는 요청을 해온다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여야의 거국내각 구성 요구에 즉각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대응한 것은 우선 정권말기에 진행되고 있는 여권의 정계개편 논란 및 야당의 정치 공세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치권의 공세에 밀리지 않고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임기말 권력 누수를 최대한 방지하고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거국내각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여야 합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정치권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청와대에는 선의의 명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도 계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거국 내각 구성을 위해 여야 대표들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 직후 "거국내각에 참여하거나 내각 인선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주장한 관리내각을 구성하려면 민의를 존중하고 국익을 수호할 중립적인 전문가를 기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국내각 구성의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만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9일 오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명숙 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거국 내각 구성을 촉구, 정치권이 하루종일 술렁거렸다. /연합뉴스

"이념·정책따라 정치권 재편해야"

김효석 대표 "한나라당 중도개혁세력 나서라"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9일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정책으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고 이념과 생각이 같은 그룹끼리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정계개편 논의는 정권을 잡기 위한 짝짓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생각과 가치가 다른 '한지붕 두가족' 정당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통보수세력, 진보가치 지향세력, 중도개혁세력 등 세 개의 그릇으로 그루핑하면 정체성이 보다 명확해진다"며 "그룹 내에서 이념과 철학으로 다투는 일은 없게 되고, 그래야 이미지 정치, 지역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중도개혁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념의 과잉이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중도개혁에 속하는 분들도 나서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젠 용기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중도개혁에 속하는 한나라당 소장파로 대선주자 가운데 한명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고진화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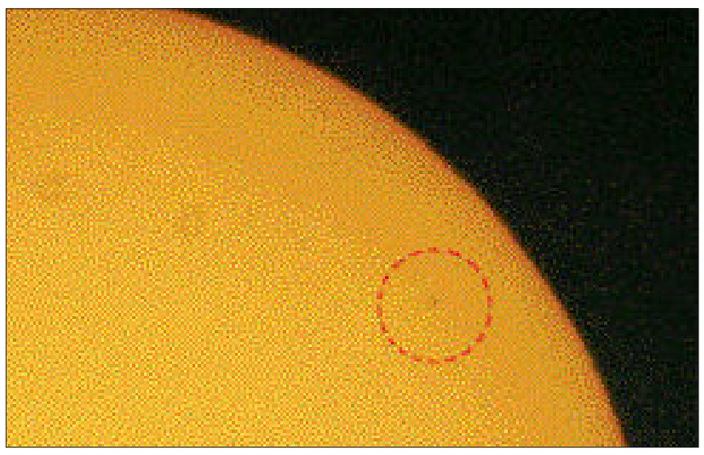
그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로 들겠다"며 본회의장 내 한나라당 의석을 가리키며 "고진화 의원, 그 자리 불편하지 않습니까. 손학규 후보도 여기(중도개혁세력)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성적표는 실패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참여정부는 의욕만 앞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미숙한 정부였다"고 지적한 뒤 "섣부른 경기부양은 독이 될 것이고, 주택정책의 목표를 서민주택 안정적 공급, 부동산과세 형평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핵문제와 관련, "여야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절대유화론, 강경제재론을 들고 나와 대선의 지렛대로 이용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국론분열에 앞장섰다"고 비판하고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북핵 스터디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양 앞면 통과하는 첫번째 행성 수성

태양계 첫 번째 행성인 수성이 태양 앞면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천문현상이 9일 오전 7시 5분부터 9시 10분까지 2시간여 동안 펼쳐졌다. 〈원내〉

한국 천문연구원(원장 박석재)은 "수성의 태양면 통과는 태양~수성~지구가 일직선으로 위치할 때 발생하며, 수성의 궤도면이 지구 궤도면과 7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 100년에 13~14번 정도로 드물게 일어난다"고 밝혔다.

수성의 겉보기 크기는 태양의 200분의 1에 불과해 태양면을 가로질러 지나는 동안 작은 점 정도의 형태로 관측됐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다음번 수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은 오는 2032년이다. (태양필터+1천㎜ 렌즈+니콘 D 70 카메라 사용)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핵실험 이후 남북 비밀접촉 6자회담 복귀·정상회담 합의"

오마이뉴스 보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 직접 채널을 통해 비밀접촉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즉시 이를 부인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특사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비밀접촉을 갖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향후 정상회담 추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대북소식통 Q씨의 주장을 토대로 한 이 보도에 따르면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신뢰를 받는 핵심(측근) 인사인 A씨와 B씨는 북한 핵실험 이후인 10월 중순 베이징에서 접촉을 한 데 이어 10월 하순 '제 3의 장소'에서 회담을 갖고 6자회담 복귀 일정 및 향후 정상회담 추진 등을 의제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 접촉에서 남측 인사 A씨는 북측 인사 B씨에게 "북한이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 효과'를 거둔 만큼 6자회담에 복귀해 대화를 하고 특히 2차 핵실험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북측으로부터 '6자회담에 나가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다음날 여야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남북 정상이 만나야 될 상황"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6자회담이 오래 지속되고 할 때는 어떤 면에서 유용한 마지막 해결의 카드인데,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상회담 합의 사실이 전격적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핵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문제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로, 대통령 고유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